

마력의 운용 - 기초

마력의 정의

어떤 현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힘. 이 힘은 기본적으로 들을 수 없고,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사용이 가능한 마도구와 접촉했을 때 그 안에 마나가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마력이 흐른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접촉자의 마나와 피접촉자의 마력이 공명하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

마력의 근원

마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나, '대기에 흩어진 마력을 시전자의 심장에 끌어다 소모하는 것'이 정설이다. 심장이 멎으면 마력을 사용할 수 없음은 이것으로 설명된다.

마력의 사용 및 회복

시전자마다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마력의 양은 다르다. 선천적으로 타고났거나, 후천적인 노력으로 마력의 수용량을 넓힐 수 있다.

소모된 마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회복 속도 또한 시전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만약 자연 치유를 넘어선 마력의 사용·회복을 원한다면 보조도구(마력초, 마력석 등)가 필요하다.

마나의 총량이나 소모량은 수치로 환산하여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특정한 마법을 통해 마나의 흐름을 가시화할 수 있다.

마력의 활용

마법어

단순 에너지인 마력을 실제 현상으로 이끌어오는 매개는 '마법어'이다. 일반 언어와는 다른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고, 살루테 전역에서 공통으로 사용된다.

시전의 매개가 되는 마법어는 형태가 명확히 존재할 수록 더 쉽고 강력하게 발동된다. 생각하는 것(묵언)보다는 말로 주문을 내뱉는 것(마법주문), 그보다는 종이에 쓰는 것(마법진)이 성공 확률이 높다.

마법어의 활용

마법어의 활용법은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폭이 넓다. 그러나 대중적인 사용법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마법진

- 종이나 땅 따위에 마법식을 적어서 마법을 시전한다.

2. 마법주문

- 마법식을 직접 발음하여 시전한다.

3. 마도구

- 도구에 마법식을 새겨 마력을 불어넣으면 도구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마법문자

마법어의 문자 하나마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문자의 나열로 마법식이 완성된다.

	A	~와 결합		B	불(화염)		K	바람(공기)
	E	~의(소속, 하위)		D	대지		L	구축(회복)
	I	생성하다, 부여하다		F	풀		M	물
	O	부정하다		G	무게		N	온기
	U	찾다		H	빛		S	파괴(삭제)
				J	증폭		T	운동(움직임, 마력, 이동)

기본 마법문자의 목록(표기/대응/의미)

[마법문자 관련 폰트와 브러쉬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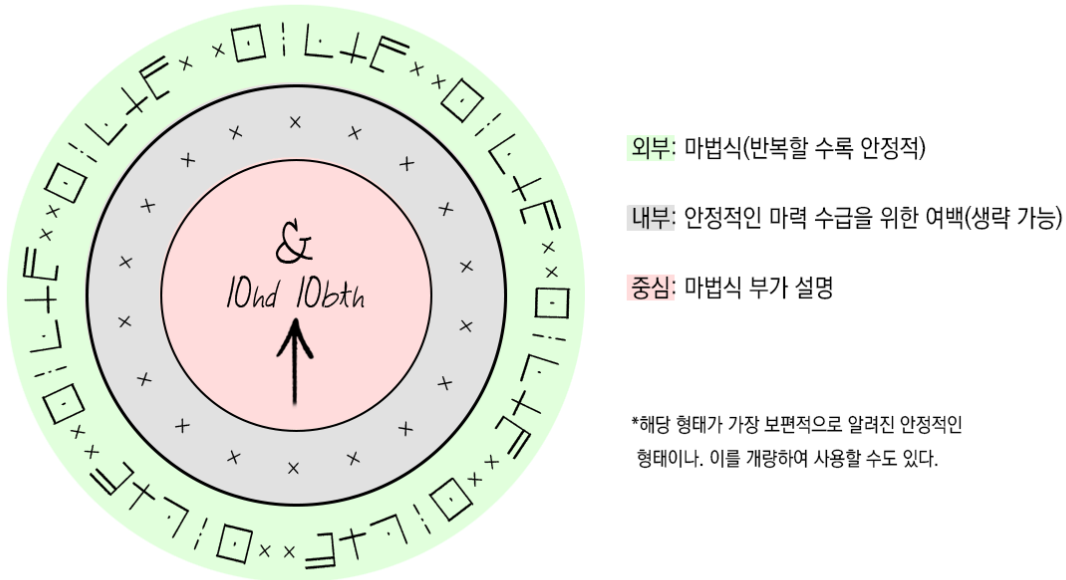
마법식 서술 이후 시전자가 대상을 지팡이나 손으로 가리키거나, 시선하는 등의 제스처를 취하면 마법식이 발동된다. 그러나 특수한 조건의 경우(대상을 곧바로 지시할 수 없음, 대상이 아닌 범위 단위로 마법을 사용, 시선하는 곳이 아닌 정확한 지점에 마법을 사용 등) 마법식 뒤에 &을 첨부하여 부가설명을 붙일 수 있다.

붙일 수 있는 부가설명은 다음과 같다.

- 명확한 시전시간 / 시전거리or시전범위or시전방향
- 명확한 대상

마법진을 활용한 마법 사용법은 간단하다. 마법진을 작성한 부분이 시전자의 몸과 닿아있는 상태에서 마력을 손 끝(혹은 스태프 끝)으로 흘려보내면 발동된다. 마법진의 위치가 심장과 가까울수록 더욱 효율적으로 마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으나 명확히 증명되지는 않았다.

마법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마법진의 기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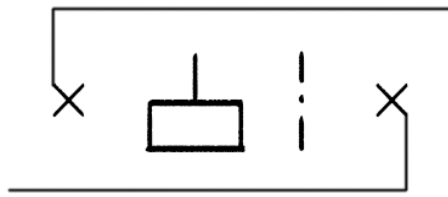
마법진을 하공에 적어 쓰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허공에 적은 문자와 형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소리나 형태 없이 마법을 시전하려면 이보다는 '묵언 주문'을 연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마법식의 활용(2) - 마법주문

시전자가 마법식을 입으로 발음하며 마력을 흘려보내면 마법이 발동된다. 정확한 발음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마법식의 이해가 요구된다. 마력을 운용하는 데에 능숙한 경지에 오르게 되면, 마법식을 속으로 발음하여 마법을 발동하는 '묵언 주문'을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한 주문 정도는 조금의 연습으로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마법식까지 묵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마법식의 활용(3) - 마도구

마법식을 도구에 새겨, 마력을 흘려넣으면 지정된 동작을 사는 형태이다. 다른 방법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지만, 마법을 변주시키지 못하고 지정된 행동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마도구에 새겨지는 마법식의 구조는 다음을 따른다.



시작/끝 문자와 이어지는 형태의 선으로
마법식을 감싼다.

마도구에 부여하는 수식

다만, 단순히 마법식만을 보고 마도구가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ti만으로 움직임을 담아둔 경우) 마도구의 실제 활용을 보려면 마력을 직접 흘려넣는 편이 좋다.

원활히 마력을 운용할 수 없는 시전자를 위해 마도구에 마력석을 장식해두는 경우도 있다.

보조 도구

시전자의 마법식 사용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 도구. 마력을 머금은 마력초를 삽취하거나, 마력이 담겨있는 마법석을 이용한다.

마력초

마력 자체가 담긴 약초, 혹은 마력식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약초를 통틀어 마력초라 칭한다. 어떤 마력초는 마법문자로 구현할 수 없는 효과(환각, 변신, 정신계열 등등)를 내기도 한다. 이런 마력초는 약초 그대로 삽취하기보다는 물약, 혹은 알약의 형태로 가공하여 삽취한다.

마력석

마력이 담긴 광물. 손에 쥐면 마력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마력이 강하게 느껴질 수록 품질이 좋은 마력석이다. 소지하고 시전자에 몸에 닿아있는 것만으로 마력을 보충해준다. 마력석에 담긴 마력을 사용한다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마력석은 여러가지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다. 주로 스태프나 마도구에 장신구를 겸하여 다는 형태로 보인다. 색상은 여러가지가 있다.